

제 1 교시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3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마지막 말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별한 날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 ② 상대와의 소통으로 자신이 위로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③ 미래를 위한 특별한 가르침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 ④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 ⑤ 가치 있는 경험을 통해 자기의 역할을 연습하게 하는 것입니다.

2. (물음) 이 방송을 들은 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듀이십진분류법	분류 기호	한국십진분류법
총류	000	총류
철학	100	철학
종교	200	종교
사회과학	300	사회과학
언어	400	자연과학
자연과학	500	기술과학
기술과학	600	예술
예술	700	언어
문학	800	문학
역사	900	역사

- ① 분류표를 이용하면 책을 쉽게 찾을 수 있겠군.
- ② '백과사전'은 두 분류법에서 모두 '총류'에 속하겠군.
- ③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 도서관에서는 '언어'와 관련된 책을 400번대로 분류하겠군.
- ④ 한국 소설인 김유정의 『봄·봄』은 한국십진분류법으로 824번대로 분류할 수 있겠군.
- ⑤ 한국 문학을 한국십진분류법에 맞게 서가에 정리한다면 '시' 다음에 '희곡'을 꽂아야겠군.

3. (물음) 이 강의를 들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원추세포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군.
  - ② 푸른색 수술복은 의사들의 집중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겠군.
  - ③ 간상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보색 잔상 현상이 나타나는군.
  - ④ 만약 피가 푸른색이라면 의사들의 수술복은 붉은색 계열이 좋겠군.
  - ⑤ 사물의 객관적인 성질과 눈으로 인지한 성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군.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4. (물음) 여학생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사한 사례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 ② 권위자의 이론에 기대어 자신의 관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상대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 ④ 자신의 경험을 통해 상대방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고 있다.
  - ⑤ 상대방 주장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 견해 차이를 좁혀가고 있다.

5. (물음) '모듬 활동'에 대해 두 학생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 ①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 ② 모듬 활동의 과제는 개별 활동에 비해 쉽다.
  - ③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
  - ④ 모듬원 하나하나가 모듬 전체에 영향을 준다.
  - ⑤ 모듬 활동을 할 때에는 모듬장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운동 종목에서 추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삶의 태도'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할 때,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종목	추출한 내용	연상한 내용
양궁	과녁에 정신을 집중해야 명중 확률이 높아진다.	목표에 대한 집념이 있어야 원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다. .... ①
승마	말과 호흡이 잘 맞아야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다.	여유로운 삶의 태도를 지녀야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 ②
요트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돛을 조절한다.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③
마라톤	장거리 완주를 위해서는 초반에 무리하게 달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려면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④
체조	균형 잡힌 자세를 유지해야 좋은 점수를 받는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삶의 태도를 유지해야 성공할 수 있다. ... ⑤

7. <보기>는 '고교생의 금융이해력 향상'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의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신문 기사

한국 고교생들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미국 고교생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 고교생들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48.2점으로 미국 고교생(61.2점)보다 낮았다. 또한 현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융교육이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고교생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나) 설문 조사 (대상: 전국 고교생)

1. 현재의 금융교육은?      2. 금융정보를 얻는 경로는?

생활에 도움이 됨  
10%

기타 21%

용어·개념에 치우침 69%

기타 18%

TV와 신문 39%

인터넷 27%

학교 16%

(다) 연구 자료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금융환경이 열악한 읍면 지역 학교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교육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이해력이 개인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금융지식을 모르는 금융문맹이 새로운 21세기형 문맹의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 정○○ 교수-

- ① (가)를 활용하여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이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문제로 제기한다.
- ② (가)와 (나)-1을 활용하여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금융교육이 용어와 개념 위주에서 벗어나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위주로 재편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 ③ (가)와 (다)를 활용하여 한국 고교생의 금융이해력 부족이 개인의 경쟁력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한다.
- ④ (나)-2와 (다)를 활용하여 읍면 지역의 학생들에게 언론과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한 금융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 ⑤ (가), (나), (다)를 활용하여 금융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8. <보기>는 ‘청소년의 바람직한 진로 선택’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개요의 수정·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I. 서론  
진로 선택의 현황 ..... ㉠

II. 본론  
1. 진로 선택 시의 문제점  
가. 진로 선택에 있어서 적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나. 학교에서의 다양한 직업에 대한 안내 및 직업 체험 활동의 기회 제공 ..... ㉡  
다. 외형적 가치 중심으로 직업을 바라보는 사회 풍조라. 진로 선택에 대한 부모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요구

2. 바람직한 진로 선택을 위한 방안 ..... ㉢  
가. 적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나. 학교에서의 직업에 대한 안내 및 직업 체험 활동 기회 부족  
다.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 ㉣

III. 결론  
편견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인식의 중요성 ..... ㉤

- ① ㉠에 특정 직업에 편중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선호 직업 통계 자료를 제시한다.
- ② ㉡은 상위 항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II-2-나’와 위치를 맞바꾼다.
- ③ ㉢에 글의 완결성을 고려하여, ‘자녀의 적성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대화를 통한 진로 선택’ 항목을 추가한다.
- ④ ㉣은 내용이 막연하므로, ‘직업 관련 사회의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 전개’로 수정한다.
- ⑤ ㉤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미래 유망 직업의 탐색과 선택의 중요성’으로 고친다.

[9~10] 다음은 문학관 기행문을 쓰기 위해 <보기>의 계획에 따라 작성한 초고이다. 9번과 10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 ‘지훈문학관을 선정한 이유와 답사 일정 → 문학관이 있는 마을 소개 → 문학관 관람 내용 → 시 공원에서의 감상’의 순서로 전개
- [A]에는 시 공원에서의 감상을 쓰되,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삶과 연결할 것

이번 문학관 답사 장소는 작가의 삶을 만나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 유적지와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인 ‘지훈문학관’으로 정했다. ㉡‘지훈문학관’이 있는 경북 영양은 문화재가 많고 전통 한옥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우리의 이런 기대를 만족시켜 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단층의 목조 건물인 ‘지훈문학관’에는 시인 조지훈의 삶의 발자취와 작품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시인에 대한 자료와 유품들을 보면서 시인이 멋과 지조의 시인으로 불리는 이유를 어렵잖게나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문학관을 관리하는 분으로부터 시집을 선물로 받았다.

‘지훈문학관’이 있는 마을 앞에는 많은 인재를 배출한 곳임을 자랑하듯 문필봉과 연적봉이 솟아 있었으며, 마을에는 유서 깊은 고장임을 알려주는 여러 고택과 서당이 있었다.

㉣마을 뒤편에 조촐하게 꾸며진 시 공원에는 여러 시비와 동상이 있었다. ‘승무’의 시비와 그 옆에서 승무를 추는 동상의 모습은 특히 인상적이었다. ( [A] )

9. 글쓰기 계획에 따라 위 글을 고쳐 쓴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어법에 맞게 ‘문화 유적지를 관람할 수 있고 특별한 체험도 가능한’으로 고친다.
- ② 첫째 문단에 ‘답사 일정’을 추가한다.
- ③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의 순서를 바꾼다.
- ④ ㉢은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한다.
- ⑤ ㉣은 전개 순서를 고려하여 ㉡ 부분으로 옮긴다.

10. 글쓰기 계획에 따라 [A]에 들어갈 내용을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용수는 하늘을 응시한 채, 한 쪽 팔은 위로 들어 올리고 다른 쪽은 땅으로 늘어뜨리며 춤추는 모습이였다.
- ② 승무를 추는 동상의 모습은 정적인 가을 분위기와 잘 어울렸다. 역동적인 춤사위와 자연의 조화가 아름다웠다.
- ③ 동상은 장삼을 펼치고 버선발을 들어 올린 형상이었다. 몸은 현실에 매어 있지만 마음만은 자유를 꿈꾸는 나와 같았다.
- ④ 고깔을 쓰고 있는 무용수를 보며 예술가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고민하는 존재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 ⑤ 별빛이 내리는 고요한 밤의 승무 공연을 상상했다. 고깔을 쓴 무용수의 춤을 보며 번뇌에서 벗어난 내 모습을 그려 보았다.

11. <보기>의 '선어말어미'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국어의 '선어말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놓이는 어미로 시제와 높임 등의 의미를 부가하는 기능을 한다.

ㄱ. 나는 지금 소설을 읽는다. / 나는 어제 소설을 읽었다.  
 ㄴ. 철수는 내일 소설을 읽겠구나.  
 ㄷ. 나는 올해 안에 반드시 그 소설을 읽겠다.  
 ㄹ. 어제 보니, 철수는 소설을 읽더라.  
 ㅁ. 선생님께서는 소설을 읽으셨다.

- ① ㄱ의 '-는-'은 현재임을, '-었-'은 과거임을 나타내는군.
- ② ㄴ과 ㄷ의 '-겠-'은 미래임을 나타내는데, ㄴ에서는 추측, ㄷ에서는 의지의 의미를 지니는군.
- ③ ㄹ의 '-더-'는 과거의 사실을 회상함을 나타내는군.
- ④ ㅁ을 보니, '-(으)시-'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군.
- ⑤ ㅁ을 보니,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보다 앞에 나오는군.

12. <보기>의 용례를 ㉠과 ㉡로 나누었을 때, 그 결과로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수줍다'와 '부끄럽다'는 의미가 비슷한 단어로,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 주체가 지니는 특성을 가리킬 때는 ㉠ 두 단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어 자신의 잘못이나 과거에 대한 태도를 가리킬 때는 ㉡ '부끄럽다'만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면 쉽게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ㄱ. 나는 (수줍음을 /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다.  
 ㄴ. 그는 거짓말을 하고도 (수줍은 /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ㄷ. 아이는 처음 만난 친구 앞에서 몹시 (수줍어했다 / 부끄러워했다).  
 ㄹ. (수줍은 / 부끄러운)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살고 있다.

- |           |         |
|-----------|---------|
| ㉠         | ㉡       |
| ① ㄱ       | ㄴ, ㄷ, ㄹ |
| ② ㄱ, ㄷ    | ㄴ, ㄹ    |
| ③ ㄱ, ㄹ    | ㄴ, ㄷ    |
| ④ ㄴ, ㄷ    | ㄱ, ㄹ    |
| ⑤ ㄱ, ㄷ, ㄹ | ㄴ       |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튿날은 **신문사** 주최인 축구대회 기사로 야근을 했고, 다음날은 부득이한 회합이 있어 역시 거기서 다시 이차, 삼차를 거듭해서 집에 돌아온 것은 새벽 세 시였다.

'㉠도대체 나는 뭇 때문에 사는 꼴까. 누구를 위해서 사는 꼴까. 문화사업? 흥!'

이러한 반문을 해본다는 것은 벌써 한 전설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수택은 또 한 가지 위대한 발견을 했다. 그것은 적어도 자기는 신문기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나 현재 아닐 뿐만 아니라 영원히 신문기자로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다. 아니 신문기자로서의 성공이 곧 문학적으로 그를 파멸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했던 것이었다. 그것은 ㉡희극-아니 비극이었다.

수택이가 하루 이틀 쉬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그는 하는 일 없이 **교외**를 빈들빈들 돌아다니었다. 하루는 S라는 동료로 유인해가지고 청량리로 나갔다. 전부는 아니나 그만 둘 계획만을 이야기하고 생계로 이야기가 읊어졌을 때다. 그도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냄새인지 몰랐었다. 매캐한 냄새가 코를 콧 찌른다. ㉢그 냄새는 코를 통해서 심장으로 깊이깊이 기어들어가는 것 같았다. -흠내였다.

그것이 흠내라는 것을 인식한 순간, 일찍이 그가 어렸을 때 들던 아버지의 음성이 바로 귓전에서 울리는 것을 느꼈었다.

'사람은 흠내를 맡아야 산다. 너도 공불 하고 나선 아비와 같이 와서 농사를 짓자.-학문? 학문도 좋긴 하다. 허지만 학문이 짐이 될 때도 있으리라.'

그때 그는 아버지를 비웃었다. 흠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면 서도 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아버지가 가엾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조소하던 그 말이 지금 그의 마음을 꼭하니 사로잡는 것이다.

'집으로 가자. 흠을 만지자.'  
 (중략)

아버지의 늘 말하던 소위 '흠냄새'와 '된장내'란 결국 이런 애정을 의미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본다. '대처 사람'들에게서는 흠냄새가 안 난다는 그 말은 곧 이 이해를 초월한 애정이 없다는 말이 아닐까.

언젠가 집 안에 도적이 들었을 때 도적을 잡았다고 자기 아버지는 그를 때렸다. 도적질은 분명히 악이다. 악을 제지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은 선이다. 이것은 사람이 가진, 그리고 가져야 할 위대한 정신인 동시에 본능이다. 이 선, 이 본능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는 지렛대끼로써 예물했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는 도적질을 악으로서 인정치 않는 것일까 하면 그렇지는 않다. 흠 속에서 나서 흠과 같이 자라고 흠과 더불어 살아온 그에게는 포근포근한 흠의 감정과 김가고 이가고 정가고 간에 씨만 뿌려주면 길러주는 그러한 흠의 애정 속에서만 살아온 그는 없어서 남의 것을 훔치는 도적놈보다도 흠의 냄새를 맡을 줄 모르고 흠의 애정을 유린한 철두철미 '대처 사람'인 아들에게 보다 더 증오를 느꼈기 때문이었으리라.

수택은 무서운 정열로 자기의 농작물을 사랑했다. 그것은

자기의 작품을 사랑하던 그 정열이었다. 문득 꺼칠해진 벼포기를 발견하고는 인쇄된 자기 작품에서 전부 뒤바뀐 구절을 발견할 때와 똑같이 놀랐다. 그것은 그지없이 불쾌한 순간이었다. 수택은 그대로 **눈**으로 뛰어 들었다. 아랫동아리부터 벼포기가 노랗게 말라든다. 이삭은 알맹이 한 개 안 든 빈 쪽정이었다. 격한 나머지 그는 벼포기를 잡고 낚았다. 강충이\*란 놈이 밭 대궁에 진을 치고 보기 좋게 까먹은 것이었다.

그는 삼십여 년의 반생 동안 이처럼 격한 일이 없었다. 이만큼 어떤 물건이나 생물에 대해서 증오를 느껴본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또 자기 혈관 속에 이토록이나 잔인한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도 오늘서야 처음 발견했던 것이었다. 그는 벼포기를 발기고 일일이 강충이를 잡아냈다. **㉔**그래서는 돌 위에다 놓고 짓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그는 일생 처음으로 미움다운 미움을 경험했다고 생각하였다.

수택은 처음 **고향**에 돌아와서 동리 사람들의 시선에서 차디찬 것을 느끼었다. 말만 고향이지 눈에 익은 얼굴도 거의 없었다. 파도에 밀린 뱃조각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쫓기어 태반은 타곳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때 그 차디찬 시선에 그는 일종의 반감까지 일으킨 일이 있었으나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 그래도 **㉕**자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품고 있던 그 증오보다는 오히려 나은 것이었다 싶었다.

‘그렇다. 하루바삐 나도 대처 사람의 탈을 벗고 흙과 친하자. 그래서 흙의 냄새를 맡을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타이러 때 누군지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짹 지른다.  
 ‘그것은 퇴화다!’  
 그것은 대처 사람인 또 한 다른 수택이었다. 물방울 한 개만 튀어도 시비를 가리고, 파리 한 마리에 상을 쪼고 그리고 디파트\*에서 한 시간씩이나 넥타이를 고르던 도회인의 반역이었다.  
 ‘퇴화? 퇴화 좋다!’  
 ‘아니 패배이다! 패배자의 역변\*이다. 도시 생활— 문명사회에서 생활 경쟁에 진 패배자의 자위 수단이다. 그것은—’  
 ‘아무것이든 좋다!’  
 그는 이렇게 발악을 했다.

— 이무영, 「제일과 제일장(第一課 第一章)」 —

\* 강충이: 농작물의 진을 빨아 먹는 곤충.  
 \* 디파트: 백화점.  
 \* 역변: 역설(逆說).

13. 위 글의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신문사’는 주인공이 도시에서의 삶에 대해 만족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② ‘교외’는 주인공이 현실과 타협하는 공간이다.
- ③ ‘집’은 주인공이 작가로서의 꿈을 실현하는 공간이다.
- ④ ‘논’은 주인공이 농작물에 대해 애착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⑤ ‘고향’은 주인공이 마을 사람들과 화해함으로써 갈등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14.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립되는 인물을 등장시켜 내적 갈등을 심화한다.
- ② 극적 반전을 통해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낸다.
- ③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치하여 사건을 지연시킨다.
- ④ 회상을 통해 아버지의 생각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한다.
- ⑤ 현재 상황과 대비되는 장면을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한다.

15. <보기>를 참고할 때, [B]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제일과 제일장」은 도시에서 벗어나 귀농한 지식인이 농민으로서 적응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이 기존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 가는 과정이 작품의 중심 내용이다.

- ① 도시의 화려한 삶을 포기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 ② 부조리한 농촌 현실과 타협하려는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 ③ 물질적 빈곤으로 인한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 고뇌하고 있다.
- ④ 작가로서 농촌의 비참한 현실을 그려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 ⑤ 도시적 삶에 대한 욕망을 누르면서 현실을 견뎌내려 하고 있다.

16. ㉑~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의문 형식을 사용하여 삶의 의미에 대해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
- ② ㉒: 상반된 의미를 지닌 단어를 통해 주인공의 내적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
- ③ ㉓: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주인공의 의식이 전환되는 계기를 보여주고 있다.
- ④ ㉔: 주인공이 거리를 두고 자신의 행동을 바라보게 하여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㉕: 비교를 통해 주인공이 지닌 아버지와의 대결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떤 지역이 언어적으로 분화하여 그 지역 안에 각각 다른 언어 특징을 지닌 소지역들이 있다면 그 지역을 몇 갈래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어떤 지역을 언어 차에 의해 나누는 것을 방언구획이라고 하며, 이러한 방언구획에 의해 나누어진 각 지역을 방언권이라 한다. 그리고 방언권들 사이의 경계를 방언경계라고 한다.

방언경계 지역에는 무지개에 색깔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두 방언권의 언어 특징들이 뒤섞여 나타나는 접촉지대가 있는데, 이를 전이지대(轉移地帶) 또는 전이지역(轉移地域)이라고 한다. 가령 벼를 한 방언권에서는 ‘베’라 하고 그 이웃 방언권에서는 ‘나락’이라고 할 때, 전이지대에서는 ‘베’와 ‘나락’이 거의 같은 세력으로 뒤섞여 쓰인다. 그곳에서 한 쪽으로 가면 점차 ‘베’의 세력이 커지다가 드디어 ‘베’만 쓰이는 지역이 나오고, 그 반대쪽으로 가면 ‘나락’의 세력이 커지다가 마찬가지로 ‘나락’만 쓰는 지역이 나온다.

그런데 전이지대에서는 독특한 의미 분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베’와 ‘나락’이 다 쓰일 때 ‘베’는 논에 있을 때의 벼를 가리킴에 반해 ‘나락’은 밭단에서 텃 다음의 벼만을 가리키는 따위의 의미 분화가 그것이다. 이것은 ‘베’와 ‘나락’이 비록 형태는 달라도 그 의미는 같던 것과는 다른 현상으로, 전이지대에서 생기는 특이한 현상이다.

한편 지금까지 없던 새 언어 특징이 생기는 현상을 개신(改新)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어느 지역에서나 ‘춡다, 춡어서, 춡으면’이라고 하였는데 어느 한 지역에서 ‘춡다, 추워서, 추우면’과 같이 말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개신이 차츰 세력이 커지면 ‘춡어서[추버서]’ 대신 ‘추워서’라고 말하는 지역이 점차 넓어진다. 이때 개신의 확장이 마치 물결의 퍼짐과 비슷하다고 하여 개신파(改新波)라고 하며, 세력의 크기에 따라 개신파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리고 개신이 시작된 곳을 방사(放射)의 중심지, 이 중심지 주변을 초점지역이라 한다. 이때의 전이지대는 개신파의 끝쪽과 이것을 저지하는 저항선이 뒤엎킨 지대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개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므로, 개신파가 서로 충돌하는 전이지대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험준한 산이나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과 같이 지리적 요인에 의해 두 세력의 싸움에 휩쓸리지 않는 지역이 생기는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개신파의 침해를 받지 않는 지역을 잔재지역(殘滓地域)이라 한다. 잔재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고어형(古語形)을 많이 간직하고 있으므로 방언 연구 및 고어 연구에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17. 위 글이 전제하고 있는 언어에 대한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는 세계를 인식하는 창이다.
- ② 언어는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물이다.
- ③ 언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기체이다.
- ④ 인간은 언어를 통해 비분절적인 세계를 분절적으로 표현한다.
- 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선천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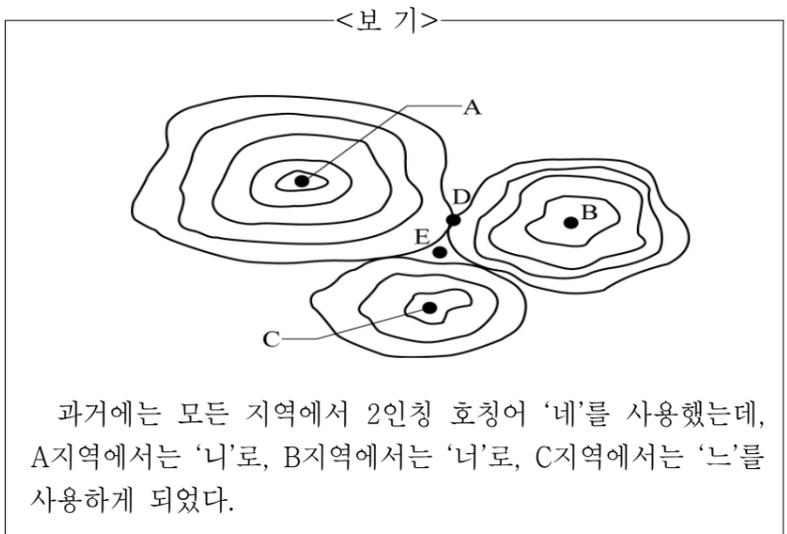
18. ㉠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중세국어 모음 ‘·’를 ‘ㅏ’와 구별하여 발음하는 제주도  
 ㄴ. ‘가위’ 대신 옛말인 ‘가새’를 사용하는 태백산맥의 어느 마을  
 ㄷ. ‘아버지’의 방언인 ‘아배’와 ‘아방이’를 둘 다 사용하는 경상도 마을  
 ㄹ. ‘볶음밥’ 대신 ‘기름밥’이라는 북한말을 사용하는 실향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휴전선 근처의 도시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19. <보기>는 서로 다른 가상의 개신파를 그림으로 그려본 것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보다는 D에서 ‘니’의 세력이 약하겠군.
- ② A, B, C는 모두 방사의 중심지에 해당하겠군.
- ③ ‘니’는 ‘너’나 ‘느’에 비해 개신의 세력이 크겠군.
- ④ D에서는 ‘니’와 ‘너’의 의미 분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군.
- ⑤ E에서는 ‘느’와 ‘네’를 혼용하는 사람들이 많겠군.



[24 ~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내 언제고 지나치는 길가에 한 그루 남아 선 노송(老松) 있어, 바람 있음을 조금도 깨달을 수 없는 날씨에도, 아무렇게나 뻗어 높이 치어든 그 검은 가지는 추추(啾啾)히\* 탄식하듯 울고 있어, 내 항상 그 아래 한때를 머물러 아득히 생각을 그 소리 따라 천애(天涯)\*에 노닐기를 즐겨하였거니, 하룻날 다시 와서 그 나무 무참히도 베어 넘겨졌음을 보았나니.

진실로 현실은 한 그루 나무 그늘을 길가에 세워 바람에 울리느니보다 빠르게 육신의 더움을 취함에 미치지 못하겠거늘, 내 애석하여 그가 섰던 자리에 서서 팔을 높이 허공에 올려 보았으나, 그러나 어찌 나의 손바닥에 그 유현(幽玄)\*한 슬바람소리 생길 리 있으랴.

그러나 나의 머리 위, 저 묘막(渺漠)\*한 천공(天空)\*에 시방도 오고 가는 신운(神韻)\*이 없음이 아닐지니, 오직 그를 증거할 선(善)한 나무 없음이 안타까울 따름이로다.

- 유치환, 「선한 나무」 -

\* 추추(啾啾)히: 구슬프게.      \* 천애(天涯): 하늘의 끝.  
\* 유현(幽玄): 깊고 그윽함.      \* 묘막(渺漠): 아득하게 넓은.  
\* 천공(天空): 하늘.              \* 신운(神韻): 고상하고 신비로운 운치.

(나)

나는 매일 밤 수색으로 가는데 수색은 보이지 않는다  
모래내를 지나 '수색' 표지판 밑으로 들어가지만  
여기가 수색 같지는 않다  
수색은 이곳이 아닐 것이다 수색이란 말만 있을 뿐이지

불어 있을 뿐이지 수색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곳을 수색이라 하여도  
안개가 낄 때 눈이 내릴 때  
내가 매일 밤 수색으로 가면서  
왜 내가 수색으로 다다르지 못할까?  
날이 갈수록 낮선 이곳 행정과 기사들이 수색이라 하지만  
결코 수색이라고 수궁하지는 않는다  
그렇다 수색은 이런 곳이 아니다 수색은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 곳이다  
거기는 적어도 태백 같은 산이 있고 석탄이 캐지고 삶 천지요  
그리고 몇 개 상점에  
철사로 걸린 남포동이 어둠을 먹어야 한다  
그러나 이곳은 서울의 일부  
아무런 꿈도 무서움도 없는 천박하고 저 더러운 식민의  
부스럽이다  
나는 매일 밤 수색으로 가면서  
여하튼 수색으로 가지 않는다  
수색은 지금 어느 어둠 속에서  
가명으로 누명으로 앓고 있을 것이다.

- 고희렬, 「수색(水色)으로 가며」 -

(다)

청풍(淸風)을 종이 여겨 창을 아니 닫았노라.  
명월(明月)을 종이 여겨 잠을 아니 들었노라.  
옛사람 이 두 가지 두고 어디 혼자 갔노.

<제1수>

내라서 누구라 하여 작록(爵祿)\*을 맘에 들꼬.  
조그만 띠집을 시내 위에 이룬바  
어젯밤 손수 닫은 문을 늦도록 닫치었소.

<제2수>

상 위에 책을 놓고 아래 신을 내어라.  
이봐 아해야, 날 불 이 그 뉘고.  
알게라, 어제 맞춘 므지술\* 맛보러 왔나보다.

<제3수>

두고 또 두고 저 욕심 그지없다.  
나는 내 집에 내 세간을 살펴보니  
우습다 낚싯대 하나 외에 거칠 것이 전혀 없어라.

<제4수>

산아 너는 어이 한결같이 높았으며  
물아 너는 어찌 날날이 흐르느냐.  
처간(處間)\*에 인지(仁智)한 군자는 못내 즐겨 하노니라.

<제5수>

오두미(五斗米)\* 위하여 홍진(紅塵)의 나지 마라.  
바람 비 어지러워 칼 톱이 무서워라.  
니중에 실컷 뉘우치나 기구하다 기로다단(岐路多端)\* 하여라.

<제6수>

- 이정, 「풍계육가(楓溪六歌)」 -

\* 작록(爵祿): 벼슬과 녹봉.  
\* 므지술: 불분명하나 맥락상 '묻어둔 술'로 보임.  
\* 처간(處間): 초야. 궁벽한 시골.  
\* 오두미(五斗米): 닷 말의 쌀, 얼마 되지 않는 녹봉을 일컫음.  
\* 기로다단(岐路多端): 갈림길의 갈래나 가닥이 많음.

24.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대상의 부재로 방황하고 있다.
- ②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지나온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 ④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다.
- ⑤ 자연으로부터 인생의 깨달음을 발견하고 있다.

25. (가)~(다)에 나타난 시어의 의미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길가'와 (나)의 '수색'은 화자의 의지에 따라 변화 가능한 공간이다.
- ② (가)의 '바람'과 (다)의 '청풍'은 화자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③ (나)의 '행정과 기사'와 (다)의 '옛사람'은 화자가 연민을 느끼는 대상이다.
- ④ (나)의 '태백 같은 산'과 (다)의 '띠집'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공간이다.
- ⑤ (나)의 '서울'과 (다)의 '홍진'은 화자가 자신을 단련하는 공간이다.

26.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와 (나)는 상징적 시어를 통해 시적 함축성을 높이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겹표를 통해 호흡의 길이를 조절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예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여 점잖고 무게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고뇌를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시에서 자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다. 그것은 물질성을 초월한 존재이며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삶의 정신적 가치를 드러낸다. 그렇기에 화자는 자연을 파괴하여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사람들의 행동을 애석해 한다. 자연과의 교감이 가능했던, 그런 순수한 삶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다.

- ① ‘노송(老松)’은 물질성을 초월한 존재로 화자에게 자연과의 교감을 가능하게 하는 대상이겠군.
- ② ‘내 항상 그 아래 한때를 머물러’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화자의 행동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그 나무 무참히도 베어 넘겨졌음을 보았나니’는 순수한 삶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꺾였음을 의미하겠군.
- ④ ‘육신의 더움을 취함’은 자연을 파괴하여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선(善)한 나무 없음이 안타까울 따름’에는 정신적 가치로부터 멀어진 현대적 삶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암시되어 있군.

28. 다음을 (나)의 화자가 쓴 일기라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늘도 나는 수색으로 향한다. ①매일 밤 수색으로 가지만 내가 생각하는 수색은 아니다. 지금 수색은 내운사인이 명멸하고 있다. ②내가 찾는 모습과 달리 이곳은 지나치게 화려한 곳으로 변했다. 깊은 지하의 석탄을 캐는 인간들의 삶이 있는 곳, 몇 개 상점에 남포등이 걸려 있는 곳, 그런 소박하면서도 순수한 곳이 내가 가고 싶은 수색이다. 그런데 ③지금의 수색은 아무런 꿈도, 무서움조차도 없는 곳이다. ④나는 이런 수색에 조금씩 익숙해져 간다.

오늘도 나는 수색으로 간다. 수색을 드나들지만 ⑤여전히 나는 수색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다.

29.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의 ‘청풍’, ‘명월’과 제5수의 ‘산’, ‘물’은 화자가 즐기는 대상이라 볼 수 있다.
- ② 제1수의 ‘창’은 제2수의 ‘문’과 달리 화자로 하여금 자연과 소통하게 하는 열린 통로라 할 수 있다.
- ③ 제2수의 ‘작독’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은 제6수의 ‘바람 비’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④ 제4수의 ‘남짓대’는 제5수의 ‘처간’에 있는 화자의 삶의 태도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 ⑤ 제4수의 끝이 없는 ‘저 욕심’은 제6수의 ‘홍진’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화자의 심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0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예를 예술로 볼 수 있을까? 공예품은 미적 대상일까? 18세기 후반에 발달한 근대 예술철학은 아름다움을, 외적인 목적 없이 대상에 내재해 있는 의미라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은 예술과 비예술, 특히 순수미술과 공예를 구분하여 공예를 예술로 볼 수 없게 만들었으며, 기능과 미를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잣대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순수미술은 대상이 주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작가와 관람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미적인 의사소통이다. 이는 작가가 대상에 담은 의미를 관람자가 관람을 통해 재구성해 내는 행위로 실현된다. 이때 작가가 대상에 담은 의미는 대상의 외적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에 비해 공예는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외적 목적을 지닌 것으로, 실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물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예품이 가진 기능이라는 목적 때문에 공예가는 미적 의도를 드러낼 수 없는 것일까? 공예품은 관람자에게 미적 경험을 불러일으킬 수 없는 것일까?

전통적인 도제, 길드 제도 하의 ㉠‘공방 공예’는 공방의 이름이 공예가의 이름보다 앞서 있었다. 공예가들은 공방의 이름과 스타일 아래 종속되어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었을 뿐 자신만의 창조적인 개성을 펼칠 수가 없었다. 그런데 현대 공예의 한 흐름인 ㉡‘스튜디오 공예’는 공예의 개념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스튜디오 공예는 공예품으로부터 기능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제거하여, 기능을 부차적인 혹은 임의적인 속성으로 변화시켰다. 오른쪽 그림은 ㉢‘콘기 라키의 ‘뭇(Spike)’이라는 작품으로, 바구니의 외형을 띠고 있지만 나뭇가지들이 뭇으로 연결되어 위험할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결국 실용적 사물인 바구니를 사용하기 불편하고 불친절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기능의 파괴를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바구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질문을 던짐으로써 대상에 작가의 의도를 담게 된다.



스튜디오 공예는 공예품이 실제 기능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기능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실제 기능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에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공예품에 있어 미적 표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공예가에게도 작품 속에 자신의 미적 의도를 담을 수 있음을 뜻하는 매우 극적인 변화였다. 하지만 스튜디오 공예가 의미하는 바를 단순히 공예와 순수미술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예를 대하는 생각의 틀이 그 미적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제한하는 편견에 갇혀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30.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예 개념의 확장 - 형태 중심에서 이미지 중심으로
- ② 순수미술의 상징성 - 시각적 이미지의 재구성
- ③ 공예에 대한 새로운 시각 - 스튜디오 공예가 보여주는 가능성
- ④ 순수미술과 공예의 차이점 - 대상을 다루는 방식을 중심으로
- ⑤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 시대와 공간에 따라

31. ㉠과 ㉡에 대해 추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는 공예가들이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을 것이다.
- ② ㉡은 예술로 인정받기 위하여 대상의 외적 목적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을 것이다.
- ③ ㉠은 ㉡과 달리 기능과 예술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 ④ ㉡은 ㉠과 달리 공예의 전통에서 벗어남으로써 관람자와의 미적인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 ⑤ ㉠과 ㉡은 모두 작가의 미적 의도를 관람자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32. <보기>의 '다다익선'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백남준은 장치 브라운관이 캔버스를 대신할 것이라고 하면서 TV 모니터로 구성된 「다다익선」이라는 비디오아트 작품을 창작했다. 이 작품은 하나의 송신자에 다수의 수신자가 대응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원리를 은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 ① 기성 제품을 재활용하여 익숙한 주제를 드러냈다.
- ② 관람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 ③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 대중 매체의 특징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관람자에게 친근함을 주고 있다.
- ⑤ 대상의 기능에 새롭게 접근하여 예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천상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김원은 대명국 김승상의 아들로 태어난다. 수박 형상이었던 김원은 천상에서 내려온 신선이 허물을 벗겨 주자 장부가 된다. 김원은 아귀에게 납치된 공주를 지하 동굴에서 구출하나 부하들은 김원을 가두고 공을 가로챈다. 지하 동굴에 갇힌 김원은 길을 헤매다 나무에 묶여 있는 소년을 구해주었다.

“소생은 동해 용자로 삼신산의 금강초를 캐어 가지고 돌아옵더니, 이동 중에 아귀가 몹시 사나워 용궁에 들어가서 크게 장난치며 소생의 누이를 빼앗으려 하거늘, 부왕이 서남북 삼해용왕을 청하여 아귀를 크게 쳐 파하니, 아귀가 패하여 돌아오다가 여기에 와서 생이 용자인 줄 알고 나무에 매달은 지 여러 날이 되었삽더니, ㉠선생의 구하심을 천만의외에 입었사오니 그 은혜 죽어도 잊지 못할 것이라. 감히 청할 수 없사오나 높으신 성명을 들어지이다.”

원수가 답하여 가로되,

“나는 대명국 도원수 김원일러니, 황명을 받자와 이곳에 들어와 아귀를 소멸하고 공주를 먼저 보낸 후 나가려 하였는데, ㉡천만의외에도 사슬이 끊어지고 땅굴이 메이기로 나가지 못하여 헤매 다니다가 그대를 만나니 이 또한 일시 연분이로다.”

소년이 다시 절하고 가로되,

“일이 이리하면 비단 재생지은(再生之恩)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 갚아 주시었으니 감격함을 이길 수 없사오며, 이제 인간 세상으로 나가려 하오면 잠깐 수궁에 다녀가심이 좋을까 하나이다.”

원수 웃으며 가로되,

“이곳은 비록 굴이라도 천지일월이 세상과 같으니 혹은 나갈 길이 있으려니와, 수부(水府)는 세상 이치가 다르니 진세(塵世) 사람이 갈 곳이 아니라. 그대가 초창하는 일은 감격하나 가히 행치 못하리로다.”

용자가 크게 웃으며 가로되,

“㉢용의 변화와 수궁의 재미를 듣지 못하셨습니다. 생을 따라 가시면 자연 인간 세상으로 나가실 것이니 조금도 의심하지 마소서.”

원수 그럴 듯하게 여겨 용자를 따라 100여 리를 가니 이곳은 동쪽의 큰 바다라. 용자가 원수를 청하여 등에 엮드리라 하거늘, 원수가 용자의 등에 오르니 용자가 몸을 뒤집어 물결을 헤치며 순식간에 용궁에 다다르니 해와 달이 명량하고 기이한 꽃과 이상한 풀, 금은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궁궐은 구름 낀 하늘에 넓고도 끝이 없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인간의 다섯 가지 복을 응하였으니, 연못 속의 천지요 물나라의 용궁이라. 용자가 먼저 들어가 용왕께 뵈옵고 아귀에게 잡혔던 일과 원수를 만나 구함을 받던 일이며, 원수와 한가지로 들어온 연유를 고하니 왕이 크게 놀라 가로되,

“그런 줄 알았으면 내 친히 기병(起兵)하여 너를 아니 구하였으랴. 그러나 은인이 왔다 하니 바빠 청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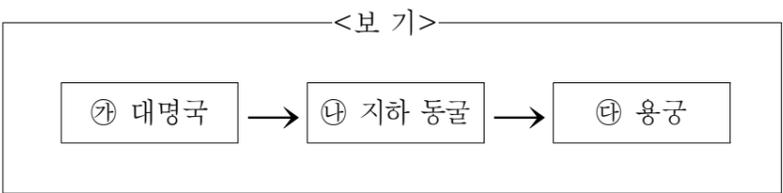
용자가 명을 받들어 원수를 청하거늘 원수가 용자를 따라 금낙전에 들어가니 용왕이 올려 예를 마치고 사례하여 가로되, “몹쓸 아귀를 소멸하고 돈아(豚兒)\*의 성명을 구하시니 은혜 감사하고 천고에 유전하리로소이다.”

원수 답하여 가로되,  
 “이는 수궁의 복이요, 용왕의 성덕이라. 어찌 소생의 공이  
 리요.”  
 원수의 겸손한 말을 더욱 애중히 여겨 큰 잔치를 열어 즐기니  
 풍악은 반공에 솟았고 술이 두어 순배 지나매, 용왕이 원수의  
 겪은 일과 용자를 구하여 돌아온 수말을 다 전해 듣고,  
 “㉔장군이 아니면 살아 돌아오기 어렵고 수궁의 화근을  
 덜지 못하리니 이 은혜는 태산이 가벼웁고 하해 알을지  
 라. 과인의 딸과 이성지합을 맺어 은혜를 갚고 의를 맺  
 고자 하나니, 그대의 맑은 의논이 어떠하뇨.”  
 원수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땅에 엎드려 가로되,  
 “㉕소생은 인간의 천한 몸이요, 공주는 용궁대인이시니  
 성의를 받들어 행하지 못하리로소이다.”  
 좌중이 격동하여 가로되,  
 “혼인은 이성지합이요, 온갖 행실의 근원이어늘 장군이 동  
 방화축을 굳이 사양하니 도리어 장군을 위하여 취하지 아  
 니하노라.”  
 원수가 좌중의 공론과 왕의 관대함을 인하여 허락하니,  
 왕이 크게 기뻐하여 길일을 택하여 혼례를 행하였다.  
 - 작자 미상, 「김원전」 -

\* 돈아(豚兒): 남에게 자기의 아들을 낮추어 이르는 말.

3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경을 묘사하여 새로운 갈등을 암시하고 있다.
  - ② 인물의 말을 통해 사건의 전후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
  - ③ 현재의 사건과 과거의 사건을 교차하며 전개하고 있다.
  - ④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고 있다.
  - ⑤ 장면이 빠르게 전환되면서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34. 위 글에 나타난 공간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㉔~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㉕에서 주인공이 아귀를 물리침으로써 인물의 영웅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 ② 곤경에 처한 주인공은 ㉕에서 만난 용자의 도움으로 임무를 완수하게 된다.
- ③ ㉕에서 주인공과 용자의 만남은 주인공이 ㉖에서 배필을 얻는 계기가 된다.
- ④ ㉔로부터 ㉕, ㉖로의 이동은 이야기에 모험적인 성격을 부여한다.
- ⑤ 주인공이 ㉕에서 ㉖로 이동함으로써 ㉔로의 복귀가 가능해질 것이다.

35.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원전」은 아래와 같은 ‘지하국대적퇴치설화’의 줄거리를 기본 서사로 활용하여 창작된 고전 소설이다. 설화와 달리 소설은 좀 더 복잡한 서사적 줄거리를 지니고 있으며 소설이 창작된 시대와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게 된다. 또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 독자의 흥미를 끌고 있다.

- 옛날 어느 곳에 사는 무사가 아귀에게 납치된 여인을 구출한다.
- 동반자의 배신으로 혼자 지하국에 갇히나 원조자를 만나 탈출한다.
- 배신자를 응징하고 여인과 결혼한다.

- ① 배경을 ‘대명국’으로 설정하여 역사적 사건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려 했군.
- ② 재미를 위해 ‘동반자의 배신’이라는 모티프는 소설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군.
- ③ ‘지하국’ 이야기에 ‘용궁’ 장면이 추가된 것은 작품에 흥미를 더하려는 의도였겠군.
- ④ ‘무사’와 달리 ‘김원’을 천상계와 관련된 인물로 그려 기본 서사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군.
- ⑤ ‘여인’을 ‘공주’로 바꾼 것은 ‘김원’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물임을 부각하여 ‘충’의 시대적 이념을 드러내려 한 것이군.

36. ㉑~㉖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김원의 은혜에 대해 용자는 백골난망(白骨難忘)이겠군.
  - ② ㉒: 김원에게 닥친 상황은 청천벽력(靑天霹靂)과도 같겠군.
  - ③ ㉓: 용자는 김원에게 동병상련(同病相憐)을 느끼고 있군.
  - ④ ㉔: 용왕은 김원에게 결초보은(結草報恩)하고 싶겠군.
  - ⑤ ㉕: 김원은 용왕에게 겸양지덕(謙讓之德)의 태도를 보이는군.

[37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방물장수와 함께 뜰막을 떠났던 돌이가 나그네가 되어 뜰막에 돌아와 뽕손이를 만나 지난 삶을 이야기한다.

81. 눈에 덮인 고갯길(황혼)

나그네. 고갯마루에 서서 저 아래 눈 속에 묻힌 뜰막을 바라보고 섰다.

나그네(E)\* 아버지의 뼈가 묻혀 있고 어머니가 떠나구 제가 태어난 이곳에서 저두 아버지처럼 살구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저절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DIS)\*

82. 가마(현재 밤)

조용한 말문을 닫는 나그네.

뽕손이 (차분히) 자네 아버님의 혼이 자네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일세. 아마 그게 또 사람의 분시부터 타고 난 길인지 모르네만…….

나그네 영감님을 여기서 만나게 된 것두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뽕손이 암! 그렇구 말구. 더욱이 자네 아버님의 죽음을 보게 된 나로선 그분을 잊을래야 잊을 수 없구. 따라서 여기서 떠날래야 떠날 수도 없었다네. 나에겐 그만큼 사무친 것이지. 자네 아버지의 죽음이…….

나그네 네. 내일은 꼭 아버지 뼈가 묻힌 데를 찾구 싶습니다.

뽕손이 음!……(가만히 그를 보더니) 찾아갈 필요도 없다네…….

나그네 (자못 놀란다) 네?! 무슨 말씀입니까?

뽕손이 내 그 사연을 자네에게 얘기하지…….

나그네 ……(본다)

뽕손이 자네가 아버지를 마지막 봤을 때 실은 그분은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었지…….

나그네 네?!

뽕손이 자네 어머니가 떠난 다음날이었다네……. (DIS)

83. 작업장(회상 낮)

물레를 돌리는 송 영감. 전을 잡은 손길이 후들후들 떨린다. 간신히 의자에 의지해 작업하고 있는 송 영감.

뽕손이(E) 그분은 그때 자네의 양육문제와 겨우살이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가마 독을 굶지 않을 수 없었다네. 그래서 독짓기에 온갖 힘을 기울이셨지. 그건 몹시 고달프고 초조한 작업이었다오…….

84. 건조장(낮)

송 영감 비틀거리며 온다. 그리고 쪽 늘어선 독들을 초조하게 운반하기 시작한다. 금세 비지땀이 솟은 송 영감. 뽕손이 안타깝기만 하다. 같이 독을 운반한다.

뽕손이(E) 그러나 송 영감이 그렇게 일을 서둔 건 단지 언제 다시 눈이 쏟아질지 모르는 겨울 날씨가 몹이 불편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네. 오히려 도망간 제자 놈이 만든 독하구 자기 독을 겨누어 보자는 그야말로 호주다운 기백 탓이었다네…….

(중략)

88. 뜰막 안

움찔하니 보는 돌이. 이때였다. 송 영감의 꼭 감겨진 눈엔 눈물. 그 가득히 고인 눈물이 한줄기 강물처럼 흘러내린다. 가늘게 아주

가늘게 경련을 일으키는 영감의 눈시울. 돌이 그래도 확인해보려는 듯 조심스럽게 송 영감의 얼굴을 쓸어 본다.

방물장수 (겹주듯) 저것 봐라! 벌써 눈에서 저렇게 썩은 물이 줄줄 나오지 않니!

돌이 움찔하니 뒷걸음치기 시작한다.

방물장수 자! 아줌마하고 가자!

돌이 손을 끌고 나간다. 송 영감의 눈이 가늘게 열린다. 그리고 나가는 돌이의 뒷모습을 사무치게 본다.

미처나갈 것 같은 송 영감의 심정-. 돌이 나가다 뒤돌아본다. 언뜻 다시 눈을 감는 송 영감. 문이 삐걱하며 닫힌다.

송 영감 이제 한사코 눈을 뜨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 눈에선 다시 썩은 물 같은 뜨거운 새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린다. 아무도 없는 방안.

백자기에 석양빛이 탄다. 아니 석양빛은 방안을 태우고 눈 감은 채 꼼짝 않고 누운 영감의 얼굴에도 그의 줄줄이 흘러내리는 눈물줄기에도 타고 있다.

(E) 돌이의 훌쩍이는 소리

순간-.

딱- 눈을 뜨고마는 송 영감. 다음 순간 그는 말할 수 없는 불안과 초조와 후회감에 사로잡힌다.

송 영감 돌았! (벌떡 일어난다) 돌았!

비틀거리며 문으로 달려간다.

- 여수중 각색, 황순원 원작, 「독짓는 늙은이」 -

\*E: 'Effect'의 약자. 효과음.

\*DIS: 'Dissolve'의 약자. 앞 화면이 사라짐과 동시에 다른 화면이 서서히 나타나게 하는 영화기법.

37.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뽕손이는 송 영감을 잊지 못하고 있다.
- ② 나그네는 뽕손이를 만나기 위해 뜰막으로 돌아왔다.
- ③ 방물장수는 송 영감에 대한 돌이의 미련을 버리게 했다.
- ④ 나그네는 송 영감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 ⑤ 송 영감은 도망간 제자의 독과 견주기 위해 독 만들기를 서둘렀다.

38.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영화에서는 시간을 재배열하는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현재의 관점으로 과거 사건을 바라보게 하여 그 인과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디졸브 기법을 사용하거나 사물이나 소리 등을 매개로 불연속적인 시간을 연결한다.

- ① 장면 82의 '조용한 말문을 닫는'은 장면 81의 나그네의 소리와 연결되어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했음을 보여주는군.
- ② 장면 82의 뒷부분에서 디졸브 기법을 사용하여 현재에서 과거로 시간을 재배열하고 있군.
- ③ 장면 83과 84에서는 뽕손이의 소리를 통해 불연속적인 시간을 연결하고 있군.
- ④ 장면 88의 효과음은 과거의 시간에서 현재로 돌아오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군.
- ⑤ 장면 88은 과거 사건을 그려내어 장면 82의 현재 관점에서 사건의 인과성을 드러내려 한 것이군.

39. 장면 88을 영화로 제작한다고 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방물장수는 돌이를 달래기 위해 타이르듯 부드러운 어조로 말한다.
- ② 송 영감의 흘러내리는 눈물에 석양빛이 비치는 모습을 클로즈업한다.
- ③ 뜰막 안에는 송 영감네의 가난한 형편이 드러날 수 있는 소도구를 배치한다.
- ④ 돌이가 떠난 뒤, 송 영감이 돌이를 애절하게 부르며 하여 한이 느껴지게 한다.
- ⑤ 돌이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연기한다.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발생(發生)이란 단세포의 수정란이 세포의 증식, 분화, 형태 형성을 거쳐 수십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복잡한 개체가 되는 과정을 일컫는다. 다윈 시대부터 생물학자들은 진화와 발생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에 주목했다. 즉, 단순한 생명체가 세대를 거듭하며 점차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하는 것이 발생과 비슷하다고 ①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발상에서 출발한 진화발생생물학인 이보디보(EVO DEVO)는 공통의 조상 관계를 밝히기 위해 생물들의 발생 과정을 비교하여 발생 과정상의 진화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보디보는 발생 과정에서 생물의 부위 형성을 조절하는 ‘호메오 유전자’의 발견을 통해 학문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 미국의 생물학자 루이스와 그의 동료들은 초파리의 호메오 유전자 연구 과정에서, 호메오 유전자들이 세포 내의 유전자 복제 과정을 정교하게 작동시키는 지휘통제소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초파리에서 호메오 유전자를 발견한 이후, 선충에서 코끼리까지 모든 동물에서 호메오 유전자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쥐에게서도 호메오 유전자가 발견되었는데, 초파리의 경우처럼 유전자들의 배열 순서가 그들이 영향을 미치는 신체 부위의 순서와 일치하였다. 이는 호메오 유전자의 유사성이 발생 순서, 복합체 조직을 이루는 방식에까지 똑같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②계통적으로 아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종에서도 호메오 유전자가 매우 유사한 기능을 하게끔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눈의 발생과 관련된 유전자는 초파리에서는 아이리스 유전자이고, 쥐의 경우에는 스몰아이 유전자이다. 이 들처럼 동물들의 눈을 형성하는 유전자를 팍스-6(Pax-6) 유전자라고 한다. 초파리와 같은 곤충의 눈은 겹눈이기 때문에 쥐와 같은 척추동물의 눈과는 구조와 재료, 그리고 작동 방식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초파리의 아이리스 유전자를 생쥐에게, 생쥐의 스몰아이 유전자를 초파리에게 이식시켰을 때 두 경우 모두 유전자를 제공한 종이 아닌, 실험 대상 종에게 맞는 정상적인 눈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초파리의 다리 발생 유전자 자리에 생쥐의 스몰아이 유전자를 이식했더니 초파리 다리에 초파리의 눈 조직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초파리와 쥐의 공통조상이 팍스-6과 같은 호메오 유전자를 사용했으며, 진화의 과정에서 이러한 유전자가 계속하여 재사용되고 보존되었음을 추

정할 수 있다.

이처럼 초파리의 호메오 유전자의 발견에서 출발한 이보디보는 정설로 여겨졌던 진화생물학의 논리에 대항하여 진화와 발생의 오케스트라를 유전자가 지휘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즉 생명체의 중요한 발생 과정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있으며, 이 유전자의 체계가 변하는 것이 바로 진화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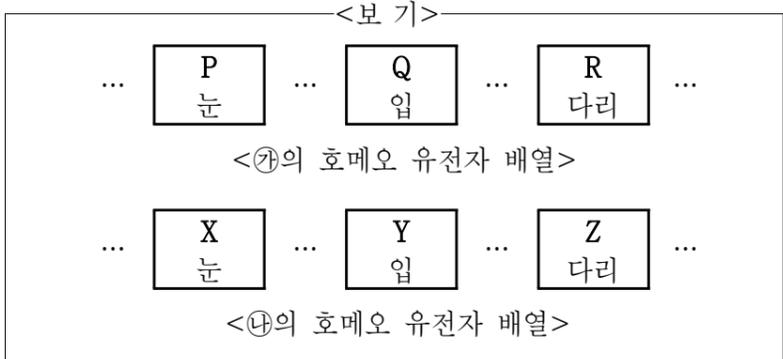
40. 위 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념을 정의하며 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② 대상의 의의를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③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유사한 속성에 비유하여 대상의 역할을 드러내고 있다.

41. ㉠을 유추를 통해 설명하고자 할 때, 그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양하게 변주되는 재즈의 기본 선율
- ② 필요한 정보를 찾도록 도와주는 검색 사이트
- ③ 인간을 대신해 위험한 작업을 하는 탐사용 로봇
- ④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톨게이트
- ⑤ 대용량의 정보를 빠르게 담을 수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42. <보기>는 ㉡, ㉢ 두 생물의 호메오 유전자 배열을 간단하게 도식화한 것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P와 X도 팍스-6 유전자로 볼 수 있겠군.
- ② Q를 Z에 이식하면 ㉢에는 다리에 입 조직이 발생하겠군.
- ③ Z를 R로 대체하면 ㉢의 다리 대신 ㉡의 다리가 발생하겠군.
- ④ ㉡와 ㉢의 공통 조상들도 팍스-6과 같은 호메오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겠군.
- ⑤ Q와 R의 위치를 바꾼다면 ㉡는 ‘눈-다리-입’의 신체구조를 지닌 개체로 발생하겠군.

43. ㉡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로 볼 수 없는 것은? [1점]

- ① 학생들은 요즘 유행하는 음악을 들었다.
- ② 그들은 한때 돈벌이에만 관심을 가졌다.
- ③ 그는 잠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다.
- ④ 이번에 그녀에게 청혼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 ⑤ 나는 문득 그가 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다.

[44 ~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완전경쟁시장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고 상품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급자와 수요자는 시장 전체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달리 독점시장은 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단일 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이 경우 독점기업은 시장 전체에서 유일한 공급자이기에 공급량 조절을 통해 가격 결정을 할 수 있어 시장 지배력이 크다. 독점기업이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된 똑같은 상품을 서로 다른 소비자에게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 '가격차별'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격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1급가격차별은 독점기업이 어떤 재화에 대하여 개별 소비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인 지불용의금액을 알고 있어 소비자 각각에게 최대 가격을 받고 판매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자잉여\*까지 모두 독점기업에게 귀속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독점기업이 개별 소비자의 지불용의금액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1급가격차별을 실시하는 독점기업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급가격차별은 독점기업이 소비자에게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지불용의금액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가격차별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입량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별로 다른 가격을 부과하여 소비자가 그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경우이다. 또한 소비자가 상품을 소량 구매할 때보다 대량 구매할 때 단위당 가격을 깎아주는 방식이 2급가격차별에 해당한다.

3급가격차별은 소비자의 특징에 따라 소비자를 2개 이상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가격차별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각 소비자 그룹의 수요곡선을 예측하여 가격차별을 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을 특징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는 것은 곧 시장을 몇 개로 분할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시장 분할에 의한 가격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 소비자잉여: 소비자가 얻고 싶은 재화를 낮은 가격에 살 경우 실제 구입 가격과 최대한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가격과의 차이에서 소비자가 얻는 이득 부분.

44.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완전경쟁시장에서 공급자는 가격 인상을 쉽게 할 수 있다.
- ② 독점시장에서 동일한 상품은 경우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되기도 한다.
- ③ 소비자들이 몇 가지 대안을 독점기업에 제시하여 가격차별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독점기업이 소비자들의 지불용의금액을 모르면 소비자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⑤ 독점기업은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가격차별을 실시한다.

45. 독점기업이 ㉠의 전략을 구사한다고 할 때, 전제하고 있는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쟁에서 뒤처지면 손해를 본다.
- ② 소비자의 특징 및 심리가 다르다.
- ③ 홍보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 ④ 수요량은 기업에서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다.
- ⑤ 상품의 질을 차별화하여 수익을 늘릴 수 있다.

46.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산 정상에서 음료수를 파는 동업자 갑, 을, 병이 판매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단, 산 정상에는 갑, 을, 병 이외의 판매자가 없으며 구매자 간 재판매는 불가능함.)

갑: 단체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 많이 사면 할인을 해주는 거야.

을: 음료수 가격의 10배인 3,000원에 팔자. 어제 그 가격보다 비싸게 팔 때는 아무도 안 샀는데, 3,000원에는 사간 사람이 있었거든.

병: 상대적으로 지불 능력이 있는 어른들에게는 비싸게 팔고, 지불 능력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싸게 파는 거야.

- ① '갑'은 지불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을 받는 1급가격차별 전략을 세웠군.
- ② '을'은 대량 구매 시 가격을 깎아주는 2급가격차별 전략을 내세우는군.
- ③ '병'은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달리하는 3급가격차별 전략을 주장하는군.
- ④ 산 정상에 음료수를 파는 사람이 많아져도 '갑', '을', '병'의 이익에는 변화가 없겠군.
- ⑤ 음료수가 한 병이고, 산 정상에 온 사람들이 모두 음료수를 사고자 한다면 '갑'의 전략이 가장 큰 이익을 남기겠군.

[47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철학자인 자크 라캉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이어받아 새롭게 재창조했다. 그는 인간 존재에 대한 중요한 철학적 성찰을 정신분석학에 가미함으로써 현대 사상을 일군 핵심 인물들 중 한 사람이 되었다.

라캉은 ‘거울 단계 이론’을 통해 자아의 자율성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밝히고자 했다. 그에 따르면 거울 단계란 어린 아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매개로 해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외적 세계를 구성하는 단계이다. 대략 생후 6~18개월 정도의 아이는 처음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외부 대상과 구별하지 못한다. 모든 것이 카오스처럼 하나로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이는 자신의 이미지를 알아보게 되고 자신의 이미지에 매료되어 그것을 붙잡으려 하고 떠날 줄을 모른다. 일견 단순해 보이는 거울 이미지는 이후 모든 심리 발달 단계에서 원형으로 작용한다.

거울 단계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은 인식의 기준이 되는 자명한 자의식이나 선형적이고 절대적인 자아는 없다는 것이다. 라캉에 따르면, 자아는 어느 순간 나의 이미지를 다른 대상 이미지로부터 분리하고 그것에 고착됨으로써 형성된다. 거울 단계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이미지에 열광하는 이유는 이 이미지가 처음으로 자신의 가시화된 신체를 보여주면서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외부로 가시화된 이미지는 내 것이기도 하지만 실은 주체의 나르시시즘\*이 투사된 타자적 대상이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단지 신체가 가시적 공간에 반영된 것으로 나와 마주해 나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그림자이며, 나의 내면을 보여주지 못하는 대상일 뿐이기에 주체에 대해 언제나 타자로만 머물며 이상화되기 쉽다. 결국 거울 단계는 매우 행복한 단계이지만, 허구적 구축이 이루어지는 단계이고 타자를 통해 자아가 구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기 소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라캉은 “주체가 스스로를 발견하고 제일 먼저 느끼는 곳은 타자 속에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여기서 타자는 실제 타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일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주체가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은 주체의 타자다. 인간은 타자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때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조적으로 인간의 욕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과 그것이 겨냥하는 대상을 향하게 된다. 욕망은 순수하게 나의 내면적 의지를 표현하는 것 같지만, 타자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는 점에서 소외의 표현이기도 하다. 자아가 타자라는 말은 이런 소외된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다.

\* 나르시시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도취에 빠지는 일.

47. 라캉의 이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거울 이미지는 심리 발달의 원형이 된다.
- ② 자신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과 결부돼 있다.
- ③ 욕망은 자기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다.
- ④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이상화되기 쉽다.
- ⑤ 거울 단계에서 자아는 자신의 이미지를 통해 구축된다.

48. ㉠ : ㉡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그림자 : 존재감  
 ㉡. 타자 : 자아  
 ㉢. 대상 : 자신  
 ㉣. 욕망 : 의지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49. 위 글의 ‘라캉’이 <보기>에 대해 평가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자아는 자생적인 것이어서 외부 대상과 상관없이 형성된다. 즉 자아는 스스로 지각하고 판단하며 결정을 내리는 자율적인 것이다.

- ① 자아가 외부 대상과 상관없다는 것은 자아의 선형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 ② 자아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어린 아이의 집착이 강화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 ③ 자아가 자율적이라는 것은 자아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형성됨을 인정하는 것이다.
- ④ 자아가 자생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은 자아가 타자를 매개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 ⑤ 자아가 스스로 지각한다는 것은 대상 이미지로부터 자신의 이미지를 분리하는 과정을 과대평가한 것이다.

50. ㉢에 쓰인 ‘뒤-’와 의미가 유사한 것은?

- ① 흥분으로 뒤끓는 가슴을 진정시켰다.
- ② 중개인은 다 된 흥정을 뒤틀고 나섰다.
- ③ 이 책이 나의 세계관을 뒤바꾸어 놓았다.
- ④ 그가 이야기하면 항상 그 말을 뒤받는 사람이 있었다.
- ⑤ 물살이 밀어닥쳐 나룻배를 뒤엎는 바람에 사고가 일어났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